

#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3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골로새서 3:1-4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29장(새 29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새교독문 4번(스크린참조)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 안에서 지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시어 저희의 소망을 허망한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항상 성령으로 일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여 우리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또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마태복음 5:1-12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복이 있는 사람(1)

- 봉 헌(offering) ..... 71장(새 50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341장(새 312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입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담임목사님은 다음 주일을 끝으로 시온교회 말씀 인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교우동정
  - 환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신성화집사님 어머니,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미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성도님(좌골 신경통), 신성화집사님 어머니,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

## <말씀묵상> 마태복음 5:1-6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3-6절) 내가 생각했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 지금 나에게서 3-6절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까?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했고, 누군가의 도움 특별히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종교'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숭배하며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 거의 현세적인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을 보면 복 받았다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반면에 삶의 어려움을 만나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무작정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고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굳이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자녀는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난제로 여겼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을 것은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